로컬뉴스

교월동, 3.1절 태극기달기 캠페인

김제시 교월동 주민센터(동장 박상문) 직원들은 다가오는 제97주년 3.1절을 맞이하여 나라사랑 실천의지를 고취하고 각 가정에 태극기 게양을 독려하고자 태극기 달기 거리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태극기 달기를 통한『나라사랑, 김제사랑』실천의지를 고취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펼쳐졌다.

캠페인에 참여한 교월동 직원들은 주민센터에서 향교까지 거리를 행진하며 주민들에게 태극기 달기를 홍보하고, 태극기 게양 방법 등을 안내하였다.

박상문 교월동장은 "국가를 잃어버린 국민의 서글픈 현실은 오늘날에도 세계 여러곳에서 목도되고 있다"며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자한 우리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오늘에 되새기기 위해 전 시민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부안농기센터 오디 GAP인증 교육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는 23일 남부안농협 회의실에서 친 환경 고품질 오디 안전 생산을 위한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 추가 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오디 뽕 재배농가 약 50명을 대상으로 GAP의 개념과 인증절차를 중심으로 친 환경 고품질 오디 안전 생산 실천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안지소 김성환 팀장이 '안전한 농 식품과 GAP 제도의 이해'를,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이봉기 뽕 재배연구 팀장이 '고품질 오디 안전 생산 재배 기술' 등을 교육해 큰 호응을 얻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기존의 GAP 기본 교육을 받지 못한 농가들이 교육을 이수해 관내 많은 오디 재배농가들이 GAP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에 오디재배 전 농가가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농촌지도자회 연시총회 개최

김제시농촌지도자연합회(회장 최규엽)는 23일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에서 농촌지도자연합회 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연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5년도 사업 결산과 2016년도 작목별 현장교육 및 선진농장 견학과 영농기술교육,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가, 우량종자 채종포 사업, 친환경 유기농사업과 연말 불우이웃돕기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총회에 이어서 고품질 고추 재배기술 교육을 1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규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는 농촌현실을 빠르고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탈피 농업인학습 단체인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앞장서 과학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지식을 창출해 내는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으로 거듭나야 된다며, 이를 위해 농촌지도자회가 지역에서 앞장서서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품목을 선도 발굴, 고부가가치 농업을 창출하는데 앞장서 실천하는 농촌지도자회가 되어야한다"며 "김제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힘써 노력 하자"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농기센터 벼병해충방제 지원

사업비 23억 투입 농가 약제 구입비 보조율 50%에서 70%로 올려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벼 병해충 중 가장 방제가 어려운 흰잎마름병과 줄무늬잎마름병 방제에 총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해 빈 틈 없는 방제사업 추진에 나선다.

기술센터는 이와 관련, "방제약제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율을 지난해 50%에서 올해는 70%로 높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달 초 병해충방제협의회를 개최하고 "육묘상처리제 22만여봉을 정읍시 벼 재배면적 전체에 지원함으로써 병해충 발생요인을 억제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술센터는 또 농업인들이 지역적으로 알맞은 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약제를 선정했고 23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이며 읍면동을 통해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육묘상처리제는 흰잎마름병과 애멸구 사전방제 효과가 크고 벼물바구미와 도열병 등의 병해충도 동시에 방제 할 수 있다.

기술센터는 "특히 애멸구가 매개하여 문제시 되는 줄무늬잎마름병은 한번 발생하면 사실상 방제가 불가능하다"며, "최선의 방제방법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애멸구를 육묘상처리제로 사전 방제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샘고을시장 방화제는 두 차례의 대형화재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1958년부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정월대보름에 한 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성대한 행사이다.

"올 한 해 불나지 않게 해주세요"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200여명 참석 무사안녕 방화제 개최

정월대보름인 지난 22일 샘고을시장의 무사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방화제가 열렸다.

이날 방화제에는 김생기시장을 비롯한 유성엽 국회의원, 우천규 시의회의장과 도의원, 시의원, 기관단체장 및 시민 200여명이 참석하여 올 한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올해로 59회째를 맞은 방화제를 주관한 샘고을시장 방화위원회(위원장 고광호)와 부녀회, 청년회는 이날 샘고을시장을 찾아준 시민들에게 떡국과 부럼 등을 제공하며 고마운 뜻을 전했다.

이어 투호놀이와 제기차기 등의 고유 민속놀이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방화제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갖춘 문화축제로 발전시킬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샘고을시장을 언급하며 "지금보다 더 많은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화제에 앞서 고광호 상인회장은 김용현 등 4명의 학생들에게 샘고을시장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한편 샘고을시장 방화제는 두 차례의 대형화재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1958년부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정월대보름에 가져오고 있는 행사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포스트비쥬얼은 부안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 과정에서 자문 및 재능기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포스트비쥬얼-부안군 '맞손'

관광산업 발전 위한 협약 체결

부안군은 지난 22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나이키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마케팅 파트너로써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문회사인 포스트 비주얼(대표 이정원)과 전국 제일의 관광지 부안 달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트비쥬얼은 부안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 과정에서 자문 및 재능기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부안군은 포스트 비주얼 임직원들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시설 사용에 협력하는 등 상호 신뢰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모색기로 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포스트 비주얼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부안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포스트 비주얼과 부안군의 상호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포스트 비주얼 이정원 대표는 "일반 기업에 비해 마케팅 재원의 한계가 뚜렷한 지자체가 전문회사의 마케팅 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며 "포스트 비주얼의 선진적이면서도 성공적인 마케팅 경험들이 부안군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트비쥬얼은 나이키, 이 니스자유, 구글, 유한킴벌리, LG전자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마케팅 파트너로서 매년 업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화제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문회사다.

/부안=이옥수기자

김제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 개최

김제시는 지난 22일 2층 상황실에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승복 부시장)의 주제로 김제시의회대표, 교육지원청· 김제영양사회· 친환경 생산농가 대표, 김제시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무상급식, 친환경 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기준 등의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무상급식은 초·중·농촌고 54개교 5,786명에게 1식당 초등학생은 2200원, 중등?농촌고 학생은 2900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쌀 급식지원은 94개교 9,465명에게 1식당 유치원 75원(70g), 초등 86원(80g), 중등 109원(140g), 고등 117원(150g)을 지원하며,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은 94개교 9,465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의 63%를 지원한다.

학교급식에 김제산 쌀을 비롯한 김제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으로 공급하기로 함으로써 관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김제시는 차별 없는 무상급식 실현 및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비 16억4천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복 김제시부시장은 앞으로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급식의 질적 향상은 물론 지역의 농가소득도 함께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생산자와 학부모, 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